2024.04.26

HI ETF Brief

ETF 시장의 무한경쟁

ETF Brief

[ETF] 박윤철 2122-9201 nzc888@hi-ib.com

Check Point

글로벌 ETF 시장의 성장은 지속 중. 초기 시장을 선점한 대형사의 위치는 독보적인 상황
국내도 ETF시장 성장과 삼성, 미래 등 대형사의 독보적인 점유율은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
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형사간 경쟁지속, 향후 신규 운용사 유입도 기대되는 상황. ETF 시장의 무한경쟁은 이어질 것

ETF 시장의 성장, 압도적인 대형 운용사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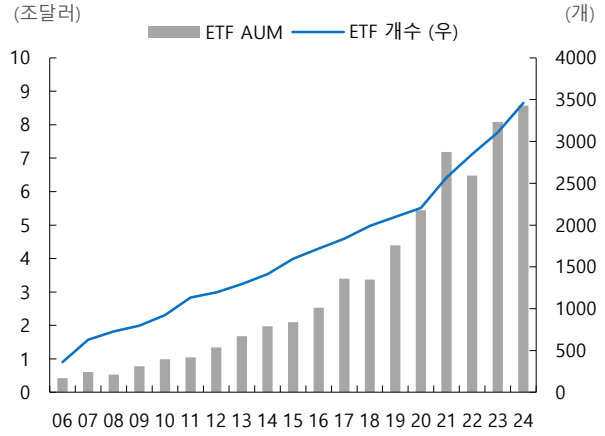
ETF 시장 성장과 함께 운용사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ETF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24년 4월 기준 3461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으며 AUM 규모는 약 8조 5700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ETF 시장의 성장과 함께 ETF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운용사의 숫자 역시 4월 기준 286개로 여타 시장대비 많은 수를 기록 중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 내 전체 ETF 시장 AUM의 절반 이상을 BlackRock과 Vanguard, 두 메가 운용사가 양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TOP 10 운용사로 범위를 넓혔을 때도 이들은 전체 시장 AUM의 약 9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형 운용사는 90년대부터 소비자 니즈에 맞은 다양한 상품 출시와 함께 운용능력을 입증하며 시장을 선점했다. ETF 시장의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ETF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운용사는 늘겠지만 ETF 시장에서의 이들 대형 운용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내 역시도 대형 운용사의 점유율은 독보적이다

국내 ETF 시장 역시도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4월 24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ETF 개수는 855개이며 AUM 규모는 약 138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역시도 ETF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운용사의 비중은 미국 이상으로 높은 모습 보이고 있다. 삼성자산과 미래자산, 두 대형 운용사의 AUM 규모는 전체 ETF 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TOP 10 운용사로 범위를 넓혔을 때는 무려 99%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대형 운용사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림1. 연도별 미국 ETF AUM 및 개수 추이



자료: Refintiv,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미국 ETF 운용사 TOP 10

운용사	AUM(십억달러)	AUM (%)	개수
BlackRock	2679.87	31.3	429
Vanguard	2480.33	28.9	86
State Street	1257.06	14.7	137
Invesco	491.83	5.7	221
Charles Schwab	329.7	3.8	30
First Trust	159.81	1.9	237
JPMorgan Chase	148.56	1.7	61
Dimensional	131.7	1.5	38
WisdomTree	76.31	0.9	78
VanEck	75	0.9	68

자료: Stockanalysis,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 ETF시장은 2002년 10월에 삼성자산의 KODEX 200(069500)과 키움자산의 KOSEF 200(069660)이 상장되며 첫출발을 알렸고 90년대 시작된 글로벌 ETF 시장대비해서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후발주자인 만큼 발전과 규모면에서 글로벌 대비 미미한 상태로 ETF 시장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일부 운용사를 포함하더라도 30여개의 운용사가 ETF 시장에 참여, 다양한 운용사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이에 기존 대형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규모가 천억원 이상 ETF간 운용사를 비교할 때 상위 ETF 운용사의 비중은 99.5%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대형사의 지위는 독보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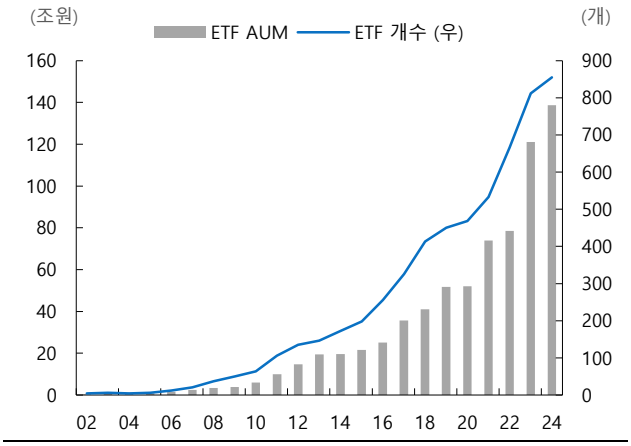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본격화된 무한경쟁

코로나 이후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ETF가 특히 국내에서 각광받기 시작했고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대형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대형사간의 경쟁도 본격화된 것이다. 여전히 삼성자산이 국내 ETF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히 20년도 이후부터 미래에셋이 다양한 상품 출시와 홍보를 통해 AUM 규모를 가파르게 늘리기 시작했고 이제 차이는 약 3%p 격차까지 좁혀졌다.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대형사의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신규 운용사 유입이 진행되며 미국과 같이 대형사의 파이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선점한 만큼 기존 대형사의 시장 내 지위의 유의미한 변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사의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대형 운용사로 인해 ETF 시장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ETF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단, 일반적인 패시브 펀드의 경우 이미 상위 운용사가 선점하고 있어 소형사가 파고들어갈 틈이 없다. 액티브 상품 위주의 라인업이 필요할 것이며 기존과는 다른 테마, 전략으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TOP 8 운용사를 제외한 ETF 상품 중 거래량이 양호한 상품은 전부 액티브 ETF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형사간 무한경쟁과 향후 신규 운용사 유입이 진행되며 ETF 시장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럴수록 운용보수 경쟁, 프로모션, 투자자 니즈에 맞는 상품의 발빠른 출시 등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3. 연도별 한국 ETF AUM 및 개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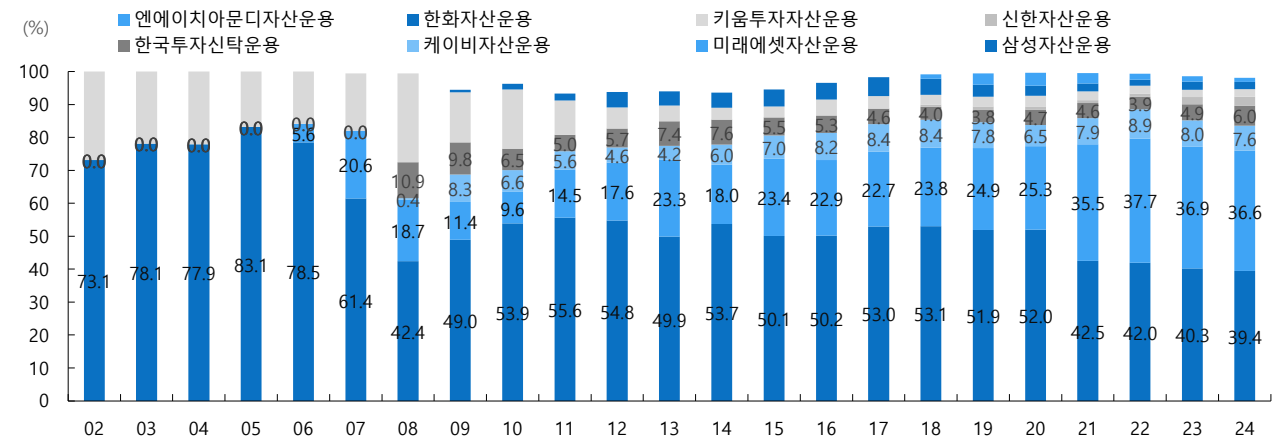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한국 ETF 운용사 TOP 10

운용사	AUM(천억원)	AUM (%)	개수
삼성자산운용	546.6	39.4	184
미래에셋자산운용	506.8	36.6	185
케이비자산운용	105.4	7.6	121
한국투자신탁운용	83.0	6.0	87
신한자산운용	37.9	2.7	41
키움투자자산운용	32.4	2.3	58
한화자산운용	29.9	2.2	64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18.1	1.3	48
하나자산운용	7.5	0.5	5
타임폴리오자산운용	4.6	0.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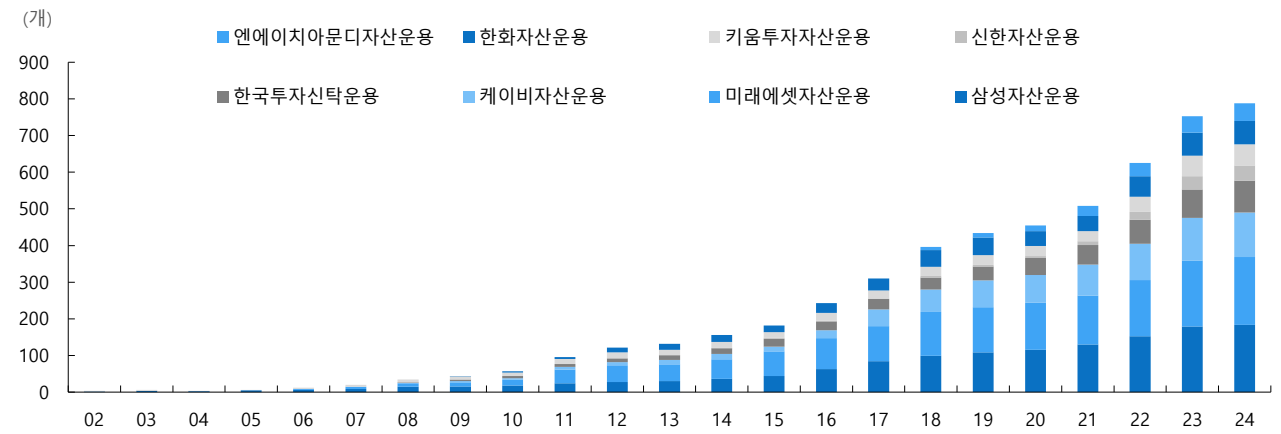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국내 ETF 운용사 TOP 8의 AUM 비중 추이



자료: Quantiwise,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국내 ETF 운용사 TOP 8의 ETF 개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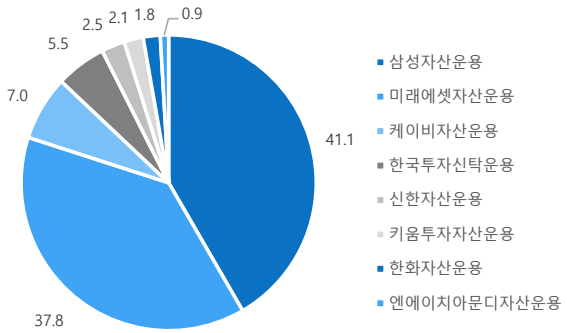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한국 ETF AUM (천억원이상) 및 개수 추이

운용사	AUM(천억원)	AUM (%)	개수
삼성자산운용	514.8	41.1	60
미래에셋자산운용	474.0	37.8	67
케이비자산운용	87.3	7.0	25
한국투자신탁운용	68.3	5.5	18
신한자산운용	31.7	2.5	11
키움투자자산운용	25.9	2.1	9
한화자산운용	23.1	1.8	10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11.2	0.9	5
하나자산운용	7.3	0.6	4
타임폴리오자산운용	3.0	0.2	2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한국 ETF 운용사 TOP 10 (AUM 천억원이상 기준)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1. 국내 AUM TOP 8 운용사 제외 평균거래량 상위 ETF

티커	ETF명	운용사	평균거래량	운용보수(%)	AUM(백억원)
A456600	TIMEFOLIO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269,224	0.8	19.3
A462900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69,957	0.5	13.2
A476850	KoAct 배당성장액티브	삼성액티브자산운용	196,617	0.5	11.5
A463050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473,846	0.8	11.2
A474590	WOORI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우리자산운용	196,255	0.31	10.1
A426030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71,081	0.8	5.5
A441800	TIMEFOLIO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164,524	0.8	3.1
A475070	KoAct 글로벌기후테크인프라액티브	삼성액티브자산운용	62,951	0.5	1.5
A426020	TIMEFOLIO 미국S&P500액티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121,215	0.8	1.4
A472720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	트러스톤자산운용	80,906	0.79	1.0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한달평균 거래량 8만건 이상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윤철)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